

보도 일시	2022. 1. 17.(월) 9:00	배포 일시	2022. 1. 17.(월) 9:00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임성환 (044-203-2861)
		담당자	사무관 김미연 (044-203-2866)

'22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19곳 선정

-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을 선도할 관광두레 피디 19명도 선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공사)와 함께 '2022년 관광두레' 신규 지역 19개소와 관광두레피디(PD) 19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3년부터 시작한 '관광두레'는 관광두레피디가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주민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지역 관광정책 사업이다. 2021년까지 109개 지역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사, 체험 등 5개 분야에서 총 822개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부산 진구, 인천(동구·미추홀구), 광주(북구·서구) 등 19개 지자체 신규 선정

2022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 부산 진구, ▲ 인천 동구, 미추홀구, ▲ 광주 북구, 서구, ▲ 울산 남구, ▲ 경기 부천, 남양주, ▲ 강원 영월, ▲ 충북 충주, ▲ 충남 보령, 금산, ▲ 전북 전주, 완주, ▲ 전남 무안, 영암, ▲ 경북 성주, 청도, ▲ 경남 창원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지역을 대표하는 대도시 비중이 31.5%를 차지해 그동안 군과 시 등 중소지역에서 활성화된 '관광두레' 사업이 지방의 주요 도시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각 지역에서 선발된 관광두레피디는 지자체와 주민, 방문객과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를 이어주고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역량강화 교육과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관광두레피디 활동기간은 최대 5년이다.

관광두레피디는 앞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창업 상담, 경영 실무 교육, 상품 판로개척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주민과 지역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정책사업으로서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해 왔다.”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광두레’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임성환 (044-203-2861)
		담당자	사무관	김미연 (044-203-2866)
<공동>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	책임자	팀장	정근희 (02-729-9412)
		담당자	차장	윤성욱 (02-729-9521)

